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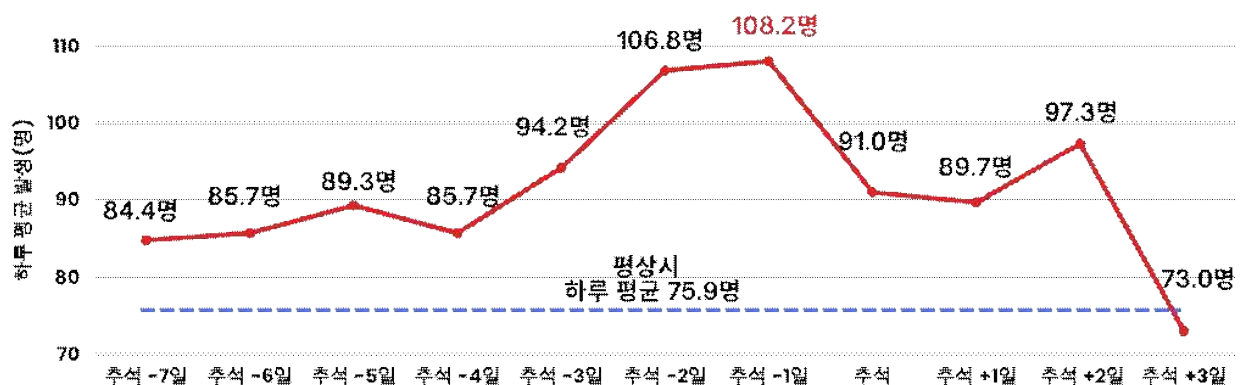
추석 전일 교통사고 환자 평소 대비 1.4배 증가

- 추석 연휴 교통사고 환자 하루 평균 96.3명 ... 평상시(75.9명)보다 1.3배 증가, 특히 추석 전일 최대(1.4배) 발생
- 좌석안전띠·카시트 착용 시 입원·사망 위험 감소
- 좌석안전띠 운전석·앞좌석 착용률 높지만 뒷좌석(48.0%)은 저조

질병관리청은 2019년부터 2024년까지 6년간 교통사고 응급실손상환자 심층조사 조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추석 연휴 동안 교통사고가 평상시보다 현저히 많은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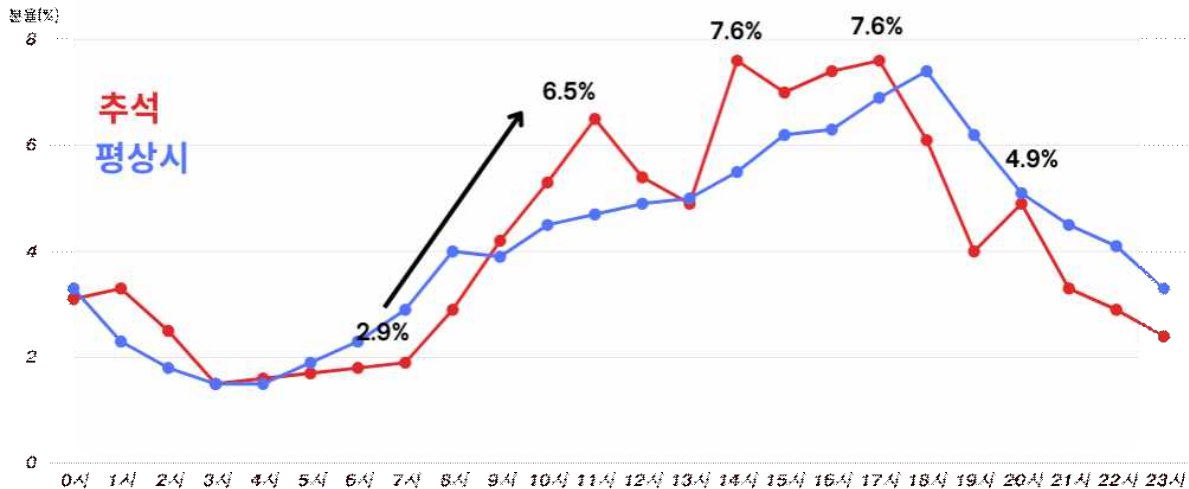
1. 교통사고 환자 발생 현황

분석 결과에 따르면, 추석 연휴 하루 평균 교통사고 환자는 96.3명으로 평상시 75.9명에 비해 1.3배 많이 발생했다. 연휴 기간 중 추석 하루 전날이 가장 많은 108.2명이었다(그림 1).



[그림 1] '19년~'24년 추석 전후 하루 평균 발생(명)

추석 연휴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간은 14시, 17시가 7.6%로 가장 많았고, 7시(2.9%)부터 11시(6.5%)까지 급격하게 증가하였다가 18시 이후 평소보다 낮은 수준으로 감소하였다(그림 2, 붙임 1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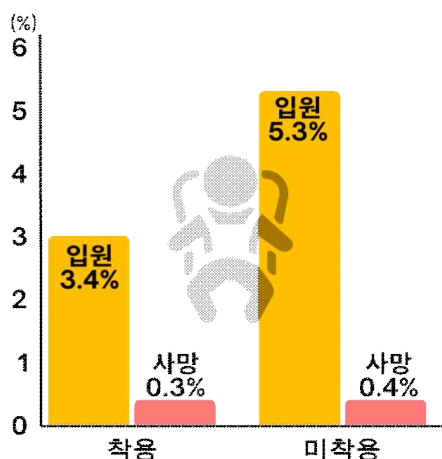


[그림 2] 평상시·추석 연휴 시간별 교통사고 발생 분율

추석 연휴 중 교통사고 환자는 평소와 비교해 남자(65.4% → 61.0%)는 감소하였고 여자(34.6%→ 39.0%)는 증가하였다. 연령별로는 50세 이상의 연령층이 감소하고 0~40대까지의 발생 분율은 증가하였다(붙임 1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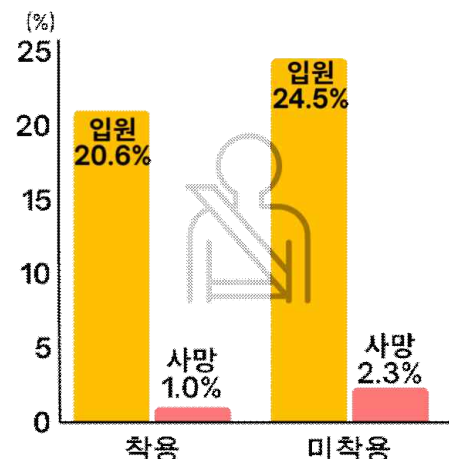
2. 좌석안전띠 착용의 중요성

교통사고는 보호장비 착용 여부에 따라 중증도가 다르게 나타났다. 카시트 착용여부에 따른 입원 및 사망 결과를 분석한 결과, 미착용한 경우의 입원과 사망은 각각 5.3%, 0.4%로, 착용한 경우(입원 3.4%, 사망 0.3%)보다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띠의 경우, 착용한 사람 중에서 입원한 사람은 20.6%였으나, 미착용한 사람은 24.5%였고, 착용한 사람의 사망이 1.0%인 반면 미착용에서는 2.3%로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그림 3, 그림 4).



[그림 3] 카시트 착용 여부에 따른 입원·사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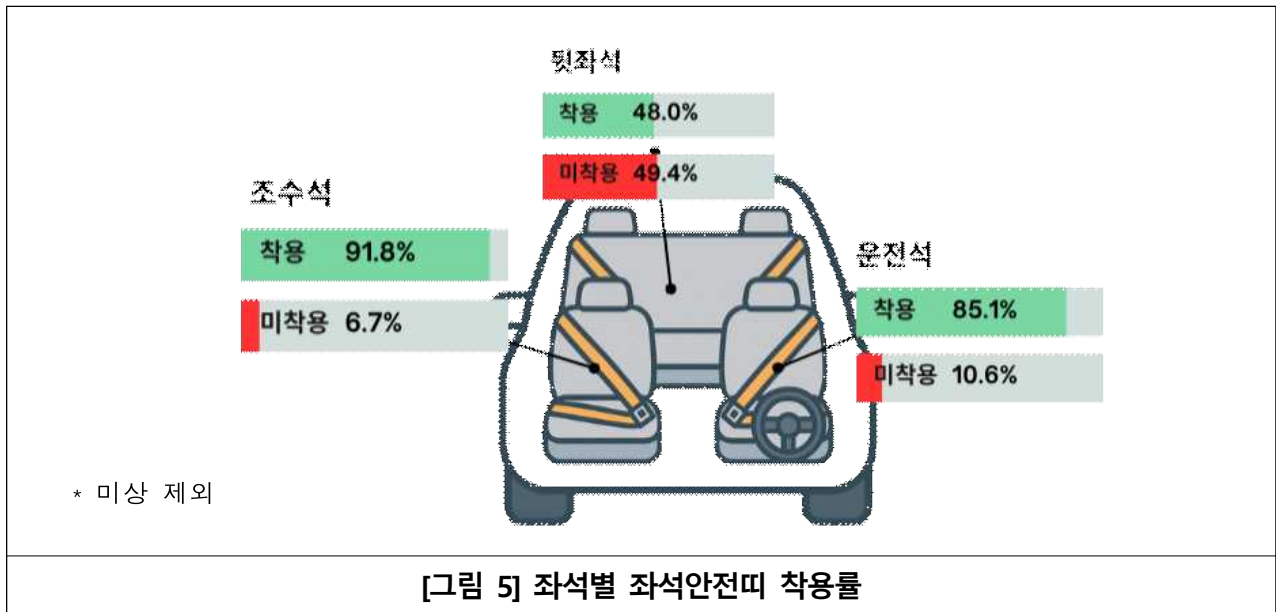
* 6세 미만



[그림 4] 좌석안전띠 착용 여부에 따른 입원·사망

* 6세 이상

차량 탑승자의 좌석별 좌석안전띠 착용률을 살펴보면, 운전석(85.1%)과 조수석(91.8%)은 높았으나, 뒷자석은 48.0%로 절반에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그림 5). 뒷좌석 좌석 안전띠의 중요성은 입원 및 사망 자료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뒷좌석에서 좌석 안전띠를 착용한 경우 입원과 사망은 각각 13.7%, 0.3%였으나, 미착용한 경우 17.0%, 0.9%로 더 많았다. 이는 뒷좌석 좌석안전띠 착용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제고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3. 교통사고 예방 수칙 및 올바른 좌석안전띠 착용을 위한 리플릿 마련

질병관리청은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명절 장거리 운전 시 주의사항 및 올바른 좌석안전띠 착용법」을 제작·배포하여 교통사고 손상 예방에 필요한 핵심 수칙을 안내하고 있다.



명절 장거리 운전 시 주의사항 및 올바른 좌석안전띠 착용법

◀ 추석 연휴 교통사고 예방수칙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엔진 제동장치 등 운행 전 차량 점검 - 전 좌석 좌석안전띠 착용 - 연령에 따른 카시트 사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행 중 적절한 휴식을 취하기 -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하지 않기 - 졸리거나 피곤할 때는 휴식 취하기 |
|--|---|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온가족이 함께 이동하는 추석 연휴에는 평소보다 하루 평균 더 많은 교통사고 환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교통사고는 손상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중증외상의 가장 큰 원인이다. 사고 발생 시, 카시트 및 좌석안전띠 착용이 입원과 사망을 줄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뒷좌석은 좌석안전띠 착용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라며, “작은 실천이 큰 안전을 지켜주는 만큼, 국민 모두가 기본 안전수칙 실천하여 안전하고 평안한 추석 연휴를 보내길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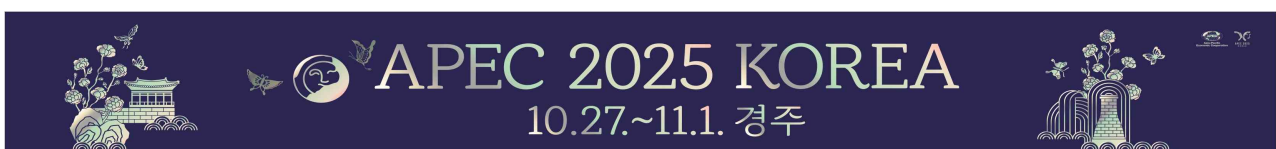
더불어 “질병관리청은 조사·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수칙을 적극 개발하고, 예방가능한 손상을 줄이기 위한 정책·홍보 자료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명절 장거리 운전 시 주의사항 및 올바른 좌석안전띠 착용법」 리플릿은 질병관리청 공식 블로그*를 통해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다.

* 질병관리청 공식 블로그(<https://blog.naver.com/koreadca>)> 쉽게보는 질병정보, 자료실

- <붙임> 1. 추석 연휴 교통사고 주요통계(2019년-2024년)
2. 명절 장거리 운전 시 주의사항 및 올바른 좌석안전띠 착용법 이단 리플릿
3. 응급실손상환자심층조사 개요

담당 부서 <총괄>	건강위해대응관 손상에 방정책과	책임자	과 장 전은희	(043-219-2910)
		담당자	연 구 관 이정은	(043-719-7411)
			선임연구원 황보나	(043-719-7419)



□ 추석 전후 연도별 하루 발생 건수

(단위: 건)

연도	추석 3일 전	추석 2일 전	추석 하루 전	추석 당일	추석 하루 후	추석 2일 후	추석 3일 후	추석 연휴 하루 평균	평상시 하루 평균
2019	130	165	164	160	125	129	98	149.7	116.7
2020	113	114	139	75	105	118	92	106.3	86.2
2021	138	121	79	79	90	82	68	82.7	72.6
2022	77	93	114	101	93	86	57	102.7	71.4
2023	70	115	124	87	88	141	93	99.7	72.9
2024	37	33	29	44	37	28	30	36.7	35.6
전 체	565	641	649	546	538	584	438	96.3	75.9

* 추석 연휴: 추석±1일

□ 평상시·추석의 교통사고 환자 발생 시간

(단위: 건, 분율: %)

시간	평상시		추석		합계
	건수	분율	건수	분율	건수
0시	5,487	3.3	54	3.1	5,541
1시	3,819	2.3	57	3.3	3,876
2시	2,993	1.8	44	2.5	3,037
3시	2,476	1.5	26	1.5	2,502
4시	2,418	1.5	27	1.6	2,445
5시	3,062	1.9	29	1.7	3,091
6시	3,845	2.3	32	1.8	3,877
7시	4,860	2.9	33	1.9	4,893
8시	6,579	4.0	51	2.9	6,630
9시	6,498	3.9	73	4.2	6,571
10시	7,352	4.5	91	5.3	7,443
11시	7,705	4.7	113	6.5	7,818
12시	8,074	4.9	94	5.4	8,168
13시	8,312	5.0	85	4.9	8,397
14시	9,056	5.5	131	7.6	9,187
15시	10,181	6.2	122	7.0	10,303
16시	10,375	6.3	129	7.4	10,504
17시	11,329	6.9	132	7.6	11,461
18시	12,195	7.4	105	6.1	12,300
19시	10,179	6.2	70	4.0	10,249
20시	8,374	5.1	85	4.9	8,459
21시	7,418	4.5	57	3.3	7,475
22시	6,847	4.1	51	2.9	6,898
23시	5,397	3.3	41	2.4	5,438
미 상	162	0.1	1	0.1	163
전 체	164,993	100.0	1,733	100.0	166,726

☐ 평상시·추석의 교통사고 환자 성·연령 분포

(단위: 건, 분율: %)

성 · 연령	평상시		추석 연휴*		합계
	건수	분율	건수	분율	
남자	107,919	65.4	1,057	61.0	108,976
여자	57,074	34.6	676	39.0	8,888
0-9세	8,752	5.3	136	7.8	8,888
10-19세	15,581	9.4	186	10.7	15,767
20-29세	27,161	16.5	311	17.9	27,472
30-39세	22,847	13.8	248	14.3	23,095
40-49세	20,801	12.6	226	13.0	21,027
50-59세	24,959	15.1	251	14.5	25,210
60-69세	22,675	13.7	223	12.9	22,898
70세 이상	22,217	13.5	152	8.8	22,369
전체	164,993	100.0	1,733	100.0	166,726

* 추석연휴: 추석±1일

☐ 차량 내 좌석별 좌석 안전띠 착용률

(단위: 건, 분율: %)

탑승 위치	미착용		착용		미상		전체 건수
	건수	분율	건수	분율	건수	분율	
운전석	4,136	10.6	33,250	85.1	1,676	4.3	39,062
조수석	648	6.5	8,822	91.8	142	1.5	9,612
뒷좌석*	4,242	49.4	4,121	48.0	220	2.6	8,583
미상	98	16.0	484	79.2	29	4.8	611

* 뒷좌석: 버스 뒷좌석 포함, 6세 이상

명절 장거리 운전 시 주의사항 및 올바른 좌석안전띠 착용법

출발 전 꼭 확인하세요

- 엔진·제동장치 등 차량 이상 여부 점검
- 타이어 마모 상태와 공기압 확인
- 전 좌석 좌석안전띠(안전벨트) 착용
- 영유아는 체형에 맞는 카시트 사용

운전 중 반드시 지켜주세요

- 돌리거나 피곤할 때는 창문 환기 후 휴게소·출몰센터에서 휴식
- 스트레칭으로 몸의 긴장을 풀기
-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절대 금지

질병관리청

올바른 안전띠 착용방법 성인 좌석안전띠

- 1. 밀착**
차량 탑승 시 좌석에 등과 엉덩이가 닿도록 밀착이 맞는다.
몸바지 앞은 발을 자르는 차고 발 밑은 우리 몸에 실직한 손상을 초래할 수 있다.
허리를 곧게 편 상태에서 엉덩이를 최대한 뒤로 밀착한다.
- 2. 잠금**
좌석안전띠의 엉덩이 부분은 '걸림' 소리가 나도록 잠긴다.
좌석안전띠가 단단히 잠겼는지 확인하고 잠금 버튼을 눌러 잠금 상태를 해제한다.
- 3. 조임**
본인의 몸에 맞도록 좌석안전띠의 높이를 조절한다.
어깨띠가 목에 닿지 않고, 어깨와 가슴 중앙을 지나도록 조절하는 습관을 길들인다.
- 4. 착용**
좌석안전띠를 올바르게 착용한다.
좌석안전띠의 어깨띠는 한쪽 어깨의 중앙과 가슴 중앙을, 골반띠는 배가 아닌 골반을 지나도록 위치시킨다.
- 5. 점검**
좌석안전띠를 올바르게 착용하였는지 다시 한번 점검한다.
좌석안전띠가 꼬여있는 경우 앞면이 분산되지 않아 가슴에 더 큰 부상을 초래할 수 있다.

올바른 성인 안전띠 착용을 위한 안전수칙

- 차량 탑승 시 반드시 전 좌석 좌석안전띠를 착용한다.
- 좌석안전띠는 본인 몸에 맞도록 조절한다.
- 하나의 좌석안전띠를 여러 명이 함께 사용하지 않는다.
- 교통사고 발생 이후 좌석안전띠는 반드시 교체하고, 노후된(4~5년 이상) 벨트는 연 1회 이상 점검한다.

올바른 안전띠 착용방법 어린이 좌석안전띠

- 1. 뒷좌석 탑승**
안전띠는 차량 뒷좌석에 설치한다.
안전띠에 어린이를 설치하면 안전 벨트에 걸리지 않는 어린이가 다치므로 뒷좌석에 설치한다.
- 2. 고정**
안전띠를 차량 좌석에 단단히 고정한다.
(1단계 고정) (2단계 단단하게 고정하여 있는지 확인) 차량 뒷좌석에 안전띠를 고정한 후 흔들림이 없는지 확인한다.
- 3. 밀착**
아이의 등과 어깨를 안전띠에 완전히 밀착시킨다.
- 4. 조임**
안전띠의 머리 받침대는 아이의 머리보다 높게 조정한다.
안전띠의 머리 받침대가 낮은 머리과 어깨 높이가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어 머리로부터 3cm 이상 높게 조정한다.
- 5. 좌석안전띠 조임**
좌석안전띠의 어깨띠는 아이의 어깨와 같은 안에서 내려오도록 한다.
- 6. 탈의**
안전띠 착용 시에는 아이의 두꺼운 옷을 벗는다.
부피가 큰 겨울용 옷을 착용할 때는 안전띠를 풀어헤쳐 안전한 자세를 취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벗고 안전띠를 착용하도록 한다.

올바른 어린이 안전띠 착용을 위한 안전수칙

- 아이의 연령과 신체에 맞는 안전띠를 사용한다.
- 안전띠를 탈의하여 설치 시 장문 예매에 설치하지 않는 어린이가 다치므로 뒷좌석에 설치한다.
- 차량 뒷좌석에 안전띠가 단단히 고정되었는지 확인한다.
- 안전띠 설치 시 안전띠가 앞좌석에 닿지 않도록 한다.
- 안전띠의 좌석안전띠는 아이 몸에 맞게 조절한다.

올바른 어린이 안전띠 착용을 위한 안전수칙

- 차량 탑승 시 반드시 전 좌석 좌석안전띠를 착용한다.
- 좌석안전띠가 신체 크기와 맞지 않을 시 크기에 맞는 것으로 교체하도록 한다.
- 장시간 차량 탑승(4시간 이상)은 심부전질환자의 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충분한 휴식을 취한다.
- 차량 탑승 시 시간에 한 번씩은 반드시 휴식을 취한다.

질병관리청

올바른 안전띠 착용방법 임산부 좌석안전띠

- 1. 시간 준수**
장시간 운전을 자제한다.
장시간 차량 탑승(4시간 이상)은 심부전질환자의 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충분한 휴식을 취한다.
- 2. 허리 지지**
허리와 골반 사이를 25cm 이상 간격을 유지한다.
허리와 가슴 밑이 너무 가까우면 사고 시 에어백이 터지면서 복부의 충격이 가해지므로 적절한 거리를 유지한다.
- 3. 고정**
좌석안전띠의 어깨띠는 어깨 중앙과 가슴 중앙을 교차하고, 골반띠는 복부 아래에 골반에 위치시킨다.
- 4. 밀착**
좌석안전띠를 느슨하게 착용하면 충격 시에 몸을 고정해 주는 효과가 떨어지므로 몸에 밀착하여 착용한다.
테이퍼 된 옷을 착용할 때는 테이퍼 부분에 테이퍼를 착용하여 밀착을 유도한다.
- 5. 자세 유지**
탑승 시 좌석안전띠가 바르게 밀착되도록 등받이를 너무 뒤로 눕히거나 옆으로 기대지 않는다.
좌석안전띠가 느슨하면 사고 시 골반의 충격이 손상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밀착을 유지한다.
- 6. 배를 아래**
복부의 하단에 좌석안전띠를 놓아두 위치시킨다.
- 7. 보호**
좌석안전띠가 주는 압박을 분산시킨다.
좌석안전띠를 착용 시 좌석안전띠의 골반띠는 최대한 자유로워 위치시켜 골반을 지나도록 한다.

올바른 임산부 안전띠 착용을 위한 안전수칙

- 차량 탑승 시 반드시 전 좌석 좌석안전띠를 착용한다.
- 좌석안전띠가 신체 크기와 맞지 않을 시 크기에 맞는 것으로 교체하도록 한다.
- 장시간 차량 탑승(4시간 이상)은 심부전질환자의 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충분한 휴식을 취한다.
- 차량 탑승 시 시간에 한 번씩은 반드시 휴식을 취한다.

□ **추진목적**

- 손상예방관리정책 개발·평가를 위한 과학적 근거 분석 기반 제공

□ **운영방법 및 참여기관**

- '06년 응급실손상환자심층조사 도입(5개 병원 참여)
 - * '08년 8개 병원, '10년 20개 병원, '15년 23개 병원으로 확대
- 다양한 손상 발생 현황을 효율적으로 감시할 수 있도록 다기관이 참여하여 연중 상시로 손상내원환자 전수를 조사하는 체계로 운영
- 심층분석이 필요한 시급한 손상 과제를 고려하여 4개 심층분과*로 나누고 23개 참여병원이 분담하여 심층조사 실시
 - * ①(운수사고) 경북대학교병원, 길의료재단길병원, 부산대학교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삼성서울병원, 연세대학교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전남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
 - ②(자살·중독·추락·낙상) 강동성심병원, 아주대학교병원, 연세대학교세브란스병원, 울산대학교병원, 이화여자대학교의과대학부속목동병원, 조선대학교병원
 - ③(머리·척추손상) 경상국립대학교병원, 동국대학교일산불교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제주대학교병원
 - ④(소아·청소년**) 경기도의료원파주병원, 고려대학교안암병원, 한림대학교 동탄성심병원, 충북대학교병원
 - ** 2024년부터 취학전 어린이에서 소아·청소년 분과로 분과명 변경

□ **조사내용 및 방법**

- (조사내용) 공통문항 60개, 심층문항 58개*
 - (공통문항) 의도성, 손상원인, 손상유발물질, 손상부위, 최종결과 등
 - (심층문항) 발생 시 상세사항, 중증도, 안전장치 활용 등
 - * (2024년 문항개정) 2023년 기준 공통문항 58개, 심층문항 44개
- (조사 방법) 의무기록자료 이용 및 면접